

【교육 대강에 기대하는 마음】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이번엔 여러분께 시바 료타로의 『역사를 기행 한다』 모모 타로 후예들의 나라 [오카야마]의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오카야마 현은 일본에서도 뛰어난 두뇌의 현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략) 메이지 이후 여학교의 수가 인구 밀도에 비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또한, 예로부터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아 다른 현은 도저히 오카야마 현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오카야마시는 2016년도 전국 학력·학습 상황 조사의 도도부 현별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국어 A (주로 지식)는 46 위, 국어 B (주로 활용)는 47 위, 수학 A 나 수학 B 도 40 위권대로 침체하고 있어 결코 좋은 결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학교에서 폭력 행위 발생 건수는 전국 평균의 약 2 배, 초등학교의 등교 거부율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학교 교육을 둘러싼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미래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카야마시의 어린이들이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기르고, 오카야마시에서 학교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학교 교육, 학교 풍토로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위원회나 각 학교, 그리고 오카야마시가 지금까지의 대처를

반성하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책임을 완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시 현재 상태를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책정한 교육 대강은 다음과 같은 목표(2020년도)를 설정했습니다.

<학력의 향상>

- 전국 학력, 학습 상태조사의 편차를 초등학교 51, 중학교 50 으로

<문제 행동 등의 방지 및 해결>

- 중학교 폭력 행위 발생 건수를 2015년 전국 평균 이하로
- 초등학교의 등교 거부율을 2015년도 전국 평균 이하로

각각 더 상위를 목표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예를 들면 중학생의 학력에 관해서는 먼저 평균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편차치 50의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또한, 교육의 목적은 인격의 완성을 목표로 더 좋은 사회 만들기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이라는 점에서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어린이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교육 과제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앞서 언급한 아이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우선 「학력」 「문제 행동」의 문제를 교육 대강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강은, 2015년 5월 이후 총 12회에 걸쳐 교육감이나 교육 위원, 지식인들과 위기감을 공유하고 열심히 논의를 거듭하면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의 강한 지도력하에 사회 전체에 오카야마의 새로운 교육의 시대를 쌓아 가고 싶다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오카야마시에서는 앞으로 이 대강을 따라 도시 전체가 교육 개혁에 도전해 가겠사오니 여러분은 한층 더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